

韓國經濟의 展望과 當面課題

金 在 源
 〈漢陽大學校副教授·經博〉

1. 서 언

근년에 들어 우리경제의 앞날을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최근 집값, 전세값, 서비스요금의 인상 등을 서두로 한 물가상승의 파급효과를 염려하는 소리가 높다. 본고에서는 한양대 경제연구소의 경제예측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2. 예측을 위한 전제

1) 해외경제 전제

지난 수년간 세계경제는 경기호황국면을 지속하여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작년에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미국·일본과 서독의 景氣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88년의 3.6%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3.1%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제 및 자국통화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금융긴축정책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리수준이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세계경제는 2.9% 내외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교역량은 88년 선진국 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9.3%의 증가를 하였으나 주요국의 성장

이 점차 둔화되고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강화가 전망되어 올해의 세계교역량은 89년의 6.5% 보다 낮은 4.8%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89년에 들어서면서 美달러貨는 미국경제가 상반기에 호조였고, 무역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안정세를 유지하던 달러貨가 금년중에 다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무역·재정수지의 큰 적자폭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의 달러貨 강세에 기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년에 비교적 弱保合勢를 유지해 왔던 엔貨를 비롯하여 서독의 마르크貨는 국내 정치의 안정 등에 힘입어 점차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엔貨의 경우는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요 무역상대국들로부터 계속적인 평가절상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서는 129 엔 수준으로 다시 절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와 무역경쟁상대국인 대만의 NT\$貨는 작년에도 약 9%의 절상을 하였으나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금년에도 다소의 추가절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국제원유가는 앞으로 당분간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원유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정되지

소폭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이유는 일부 OPEC 회원국들이 재정壓迫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한 생산량 이상 큰 폭으로 원유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의 OPEC 평균유가는 작년보다 배럴당 1~2달러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원유 이외의 국제 원자재 가격도 선진국의 수요가 둔화되는데 반해 산지의 생산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가격의 경우 원당이나 커피 등을 除外하고는 미국 등 주요 생산국들의 작황 호조로 작년보다 더 큰 폭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며 鑛産物價格도 지난 수년 동안의 세계경기 호황에 따른 수요증가로 가격이 急騰한데 따른 반작용으로 금년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 국내경제 전체

본 예측의 주요 외생변수는 농림어업부문의 성장률, 수입단가지수, 대미환율, 임금상승률 등이다. 먼저 농림어업부문의 경우 작년의 쌀, 고추 등의 생산에서 88년보다 성장이 떨어질 것

국내경제 전체

<表-1>

	1989	1990
농림어업 GNP 증가율(%)	-1.6	4.0
수입단가지수(%)	3.6	3.0
대미 달러 환율 (원, 연평균)	671	695
(원, 연 말)	680	710

물가부문 전체

<表-2>

(단위 : %)

	1989	1990
정기예금금리	10.0	10.0
명목임금상승률 ¹⁾	25.3 ²⁾	13.0
잠재 GNP 성장률	8.0	7.5

註 : 1) 비농림어업 常備 從業員 월평균 임금수준.
2) 89년 7월 기준.

으로 예상되나 올해에는 작황이 평년수준을 유지한다고 보아 4%의 성장을 전제하였다.

한편 對美달러換率은 1986년 이후 89년 4월까지 33%에 이르는 切上을 계속함으로써 5월 이후의 환율안정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현재의 국제수지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올해도 환율이 약 4% 정도 평가절하기조가 유지된다고 보아 금년말 기준으로 약 710원선에 이를 것으로 전제하였다.

87년 여름의 노사분규 이후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가 강화되었고 이런 기조는 89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작년의 명목임금상승률은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의 임금인상률은 제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약 1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밖에도 물가와 관련된 주요외생변수는 금리와 잠재적 GNP 성장률인데 금리는 올해에도 시중임금사정이 비교적 원활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채금리를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연 1% 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제하였다. 금년의 잠재 GNP 성장률은 최근 설비투자의 부진을 감안하여 작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제하였다.

3. 국내경제 예측

1) 국민총생산과 물가

지금까지 가정한 외생변수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소의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부문을 예측한 결과를 <表-3>에 제시하였다. 즉 금년의 실질 GNP 성장률은 6.6%에 그쳐 86~88년간의 고도성장에서 89년에 이어 경기下降調整局面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어업부문의 성장률은 4.0%, 비농림어업부문의 성장률은 6.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表-4>와 같다. 먼저 89년 중 총소비 증가율은 GNP 성장률을 훨씬

국민총생산과 물가

〈表-3〉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1988	1989 ¹⁾	1990
실 질 GNP	12.2	6.6	6.6
농 립 어 업	9.0	-1.6	4.0
비 농 립 어 업	12.6	7.5	6.9
GNP 디플레이터	4.3	4.2	4.5
소비자 물가지수	7.1	6.2	5.6

註: 1) 한국은행 추정치.

주요 부문별 성장률

〈表-4〉 (단위: %)

	1988	1989 ¹⁾	1990
실 질 GNP	12.2	6.6	6.6
총 소 비	10.0	9.8	7.8
고 정 투 자	11.8	13.8	10.2
수 출	13.1	-5.1	5.8
(상 품)	14.7	-6.3	5.9
수 입	12.2	15.1	9.5
(상 품)	11.8	13.1	9.8

註: 1) 한국은행 推計置.

센 옷도는 9.8%에 이르러 성장을 뒷받침하기는 했으나 과소비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는 그동안의 고도성장에 따른 실질소득의 증가와 함께 높은 임금인상, 부동산 및 주가상승에 의한 재산소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의 소비지출은 경기둔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안정, 정부의 물가안정화 정책의 강화, 임금인상률의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성 재정지출이 작년보다 확대된다고 해도 7.8%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의 경우도 수출부진과 노사분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제조업 부문에서의 設備投資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부문이나 비제조업 부문에서의 건설 및 設備投資가 89년보다 활발할 것을 감안하더라도 올해의 투자증가율은 작년의 13.8%에 훨씬 못미치는 10.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89년 수출은 상품수출이 물량수준으로는 전년대비 6.3%나 감소하였기 때문에 5.1%의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對美換率이 지난 2년간 30% 이상 급격히 평가절상되었고 국내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나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개선은 단기간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수출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환율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는 전제하에 금년도 수출은 선진국의 경기둔화 및 수입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출이 5.9%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용역수출까지 포함한 총수출은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입은 정부의 關稅引下를 통한 수입 개방정책과 내수용보다는 수출용 수입의 상대적인 빠른 증가로 89년보다는 낮으나 비교적 높은 약 9.5%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의 경우 지난 수년 동안의 고성장으로 인해 가계부문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것이 저축보다는 소비증가를 유발한 반면 서비스업종 중에서 임금인상분을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기보다는 가격인상으로 전가시키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하여 89년의 경우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이나 원유가격이 안정될 전망이고 신도시개발을 비롯한 주택경기의 호조로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예상되나 임금인상폭이 여전히 불안한데다 공공요금 및 서비스요금의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소비자물가는 5.6%, GNP 디플레이터는 4.5%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제수지

89년 중 수출은 당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당초의 기대보다도 더 낮아 전년대비 2.6% 증가한 612억불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출이 부진한 원인은 대외적으로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경기둔화로 수입수요가 줄어들었고 대내적으로는 노사분규, 원화절상과 임금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악화 등으로 노동집

약적인 경공업제품뿐 아니라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도 기대 이하의 신장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년에도 세계 수입증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의 신속적인 운용에 힘입어 수출단가가 4.5% 정도의 인상에 그칠 것이 예상되므로 올 수출은 전년 대비 10.9% 상승한 679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89년의 수입은 수입자유화와 관세율인하 등 시장개방정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왔고 특히 자본재보다는 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18.5% 증가한 571억불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금년에도 수입증가율은 계속 수출증가율을 웃돌아 643억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무역수지는 작년의 41억불에서 36억불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도 89년에 크게 줄어들어 5억불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즉 해외자산의 증가에 따른 투자수익과 해외건설 수입은 다소 증가했지만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해 여행수지가 크게 악화되었고 원화가 다시 절하기조를 띠자 hot money가 대폭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금년에도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의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5억불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작년의 46억불에서 금년에는 41억불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제수지 전망

〈表-5〉 (단위: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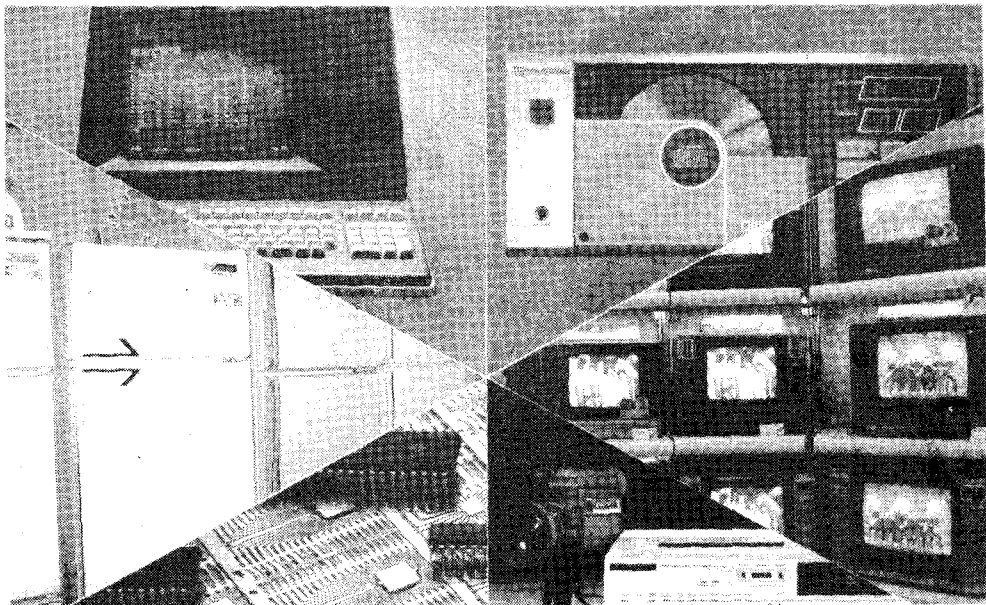
	1988	1989	1990
경 상 수 지	141.6	46	41
무 역 수 지	114.5	41	36
수 출	596.5	612	679
	(29.0)	(26)	(10.9)
수 입	482.0	571	643
	(24.7)	(18.5)	(12.6)
무역외 및 이전수지	27.1	5	5

註: ()은 전년대비 증가율. Bop 기준.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90년의 우리경제는 89년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는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조정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89년 경기침체의 주요인이었던 환율은



원화의 평가절하가 미약하나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의 압력이 지속되고 대내적으로는 노사분규의 전망이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90년에도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앞서서 국제수지 흑자율이 89년 수준을 밑도는 저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의 확대, 서비스부문의 물가상승요인이 존재하고 있어서 저성장하의 물가불안이 전망되고 있다. 이상의 경제예측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는 대외여건의 변동에 기인하는 불확실성이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대두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금년의 경우에는 89년과 마찬가지로 노사분규라는 국내적 요인에 기인한 불안요인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적 요인에 기인한 불안요인이 대외적 요인보다도 오히려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근로의욕의 저하와 이에 기인한 생산과정에서의 불량품의 증대 및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을 선호하는 등 노동공급 형태의 변동이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에도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으나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느냐를 두고 노사간의 시각 차이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서 임금교섭을 둘러싼 노사간 이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 경제모형의 전망치에 근거하여 볼 때 생산성원리에 근거한 90년 적정임금 인상률이 높으리라고 전망되지는 않는다. 즉 임금을 내생 변수화할 경우 임금인상률은 소폭 증가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노·사·정부 모두가 우리가 처한 경제여건에 순응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노사관계가 원활화 될 수 있는 합심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금년에도 물가의 안정은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즉 금년의 우리경제는 성장의 둔화에 따른 실업문제 등이 염려되기는

하나 물가의 안정심리가 무너지게 되면 노사간 임금협상이 어렵게 될 것이고 국제경쟁력의 약화, 과소비 풍조의 억제가 어렵게 될 것이다.

금년 정부예산 규모나 임대료 인상 등에 기인한 서비스업부문의 물가 인상요인, 지방자치체 선거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상해 볼 때 금융정책의 신중한 운용과 수급안정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올해도 경기퇴조나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진작책을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부양책의 실시는 무엇보다도 그 시기가 중요시된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의 애로가 수요부족에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기업의 설비투자의 위축 등에 기인한 공급측면에 그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수요창출보다는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사회적 여건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투자위축의 가장 큰 요인이 노사분규임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노사분규가 완화되리라는 전제하에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패턴을 고려해 볼 때 투자가 생산부문에서 이루어지고, 노동생산성의 증대, 기술혁신을 이루며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될 수 있도록 경제구조의 재편이 실업을 극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 2~3년간 급격히 격차가 벌어진 대기업·중소기업간 그리고 업종간 재산성과 생산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모든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의욕 및 기업의 투자 의욕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배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의 경제성장의 외부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원배분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주어져야 될 것이다. 즉 우리 경제가 점차 복지형으로 전환되면서도 근로의욕이 감퇴되지 않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정책방향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